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갈등대처행동과 부부갈등의 매개역할*

이혜경** · 이은희***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자아분화수준이 갈등대처행동에 따른 부부갈등을 통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K도의 5개의 시 지역에 소재한 8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24학급의 남녀 아동 399명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399쌍, 798부)를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회피대처,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 대처 및 외부도움요청 대처를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회피대처,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 대처를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와 모의 자아분화 수준은 직접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감정적 대처행동을 통하여 부부갈등 심화시키고, 심화된 부부갈등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동들을 면담할 때에 부모의 자아분화수준까지를 고려하는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며,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부부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갈등대처전략에 관한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자아분화, 부부갈등, 문제행동, 갈등대처행동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신저자, ehlee@kyungnam.ac.kr, 경남 마산시 월영동 449 경남대학교.

I. 서 론

경기불황으로 가정 내 갈등이 깊어지면서 가출 청소년이 늘고 있다. 특히 가출 연령이 초등학교 4·6학년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YWCA가정폭력 상담센터에 따르면 부부갈등으로 인한 상담건수가 2007년 1,416건에서 2008년 2,054건으로 증가했다(경기북부시민신문, 2009. 11. 13). 2008년도에 경찰에 붙잡힌 14세 미만 소년 범은 5,547명으로 2007년 3,602명에 비하면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7월말 현재 2,128명에 이르며(경향신문, 2009. 11. 1),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중, 고등학교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현실은(한국교육신문, 2007. 1. 1),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많은 아동, 청소년 문제를 야기하며, 이들의 문제행동이 점차 심각해지며 비행의 연령이 낮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학교현장에서도 초등학교 교사들은 30여명이 재적인 단위학급에서 4~6명(약 15%)의 아동이 행동문제를 보이는 증상을 갖고 있어 문제행동의 심각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서로 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동아일보, 2006. 4. 10). 특히 아동기의 행동문제는 그 표현과 증상이 청소년기만큼 현저하지 않아서 자칫 간과하고 있는 사이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전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사회적 기대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한민현·유안진, 1995)으로서 가족환경, 가족외적 환경 및 아동의 개인적 특성간의 복합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 정서적 부적응의 결과이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부모의 직업(한민현·유안진, 1995),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한민현·유안진, 1995), 부모의 교육수준(이경주·신효식, 1997), 부모의 양육행동(이경주·신효식, 1997; 정문자 외, 2004), 사회적지지(김광웅·조미영, 1999), 부부의 갈등수준(이정덕·권영옥 1999), 스트레스 대처행동(정문자·박진아, 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양현아·박영애, 2003), 삼세대 가족관계경험(전연진·정문자, 2003; 정경연·심혜숙, 2007), 부모와의 정서적, 안정성 차원의 성격차이(하선애, 2007) 등임이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심리적 상호작용 즉 가족의 역동성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핵심변인임을 시사한다.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은 아동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의 맥락에서 문제행동의 발생의 원인을 찾고 있다(서연석, 1999; 황규선·최연실, 2002;

Zeanah, 1993; 이남숙 외, 2009, 재인용).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서는 부부가 원가족으로부터 개별화되지 않고 정서적으로 융합된 미분화된 자아를 가졌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건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녀와의 삼각화를 통해서 부부의 미분화에서 오는 갈등을 자녀에게 투사시켜서 자녀가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즉 부모가 원가족으로부터 분화 수준이 낮은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부모의 자아분화수준과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정경연·심혜숙, 2007; 정문자 외, 2004; 조영경, 1999; Tuason & Friedlandle, 2000)과 부모의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심리적 증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서연석, 1999; Peleg, 2005)이 있어서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를 결합표집하여 부모의 자아분화수준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Gottman(1999)은 이혼 및 결혼만족과 관련된 일곱 가지의 위험요인을 밝힌 바 있다. 즉 부부간에 부정적 행동이 긍정적 행동보다 많은 경우,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총체적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 귀인, 높은 수준의 비난, 방어, 경멸, 냉담, 배우자의 강한 부정적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정서적 폭발, 갈등이 발전할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의 실패, 거친 부인의 개시, 부인으로부터의 영향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거절, 일상의 문제들에 대한 대화보다는 교착상태의 요인들 때문에 부부가 이혼함을 발견하였다. 즉 Gottman의 모델에서는 배우자간의 현재의 상호작용 형태에 초점을 두어 부부갈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을 재확인한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지만 부부 상호작용에서의 갈등양식들의 부조화 효과(Busby & Holman, 2009), 부부가 의사소통하는 동안의 부부의 생리적 반응(Denton et al., 2001) 부부가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하여 부부갈등 및 파국에 이르는 지에 관하여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낮은 자아분화 수준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핵심원인으로 보는 Bowen의 가족체계이론과 부부간의 상호작용 형태에 초점을 두어 부부문제를 설명하는 Gottman의 부부치료 이론을 종합하여 부부의 심리적 역동이 어떻게 아동의 문제행동을 어떻게 유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지만 가족체계 치료자인 Bowen(1976)은 자녀의 신체적, 행동적 증상은 개인의 내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분화수준이 낮은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자아분화란 자신의 성격에서 정서적 측면과 지적측면을 구분하고 통합하는 개인의 능력으로서(Bowen, 1990),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충동들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위기들에 유연하고 자기통제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다. 반면에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감정과 사고가 융합되어 충동에 따라 자동반사행동을 하게 된다(Baum & Shnit, 2005). 개인의 자아분화수준은 다른 사람들과의 분화정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융합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 .

Bowen(1976)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의 영향을 강조하였으며, 부모의 자아분화수준이 세대간 가족관계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가족과 분화되지 않은 사람은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을 낳고, 부모와 정서적으로 단절된 사람은 결혼을 하면 정서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서로에게 투사하여 가족끼리 융합한다. 이러한 새로운 융합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배우자간의 정서적 거리감 발생,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역기능 발생, 부부갈등,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에 대한 문제의 투사가 일어나서(Nichols & Schwartz, 2002; 2004) 자녀를 더욱 미분화상태이게 한다. 결국 개인의 자아분화수준이 대대로 전달되는 다세대 전수과정을 통하여 자녀의 정서적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심리적 증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서연석, 1999; 이남숙 외, 2009; 이미숙 외, 2009; Peleg, 2005)을 종합하여 부모의 낮은 자아분화 수준이 문제행동을 유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2.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부부갈등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서는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의미있는 지속적인 관계능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서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한다고 본다(조은경·정혜정, 2002). 즉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부부관계에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Reifman, 1986; 한영숙, 2007, 재인용). 선행연구에서도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의 적응수준(제석봉, 2002) 및 가족생활만족도(박경환, 2010)가 높고, 자아분화 정도가 낮을수록 부부갈등을 많이 경험하며(한영숙, 2007),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결혼적응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전춘애·박성연, 1994; 이소미·고영진, 2009)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낮은 자아분화수준이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부부갈등이란 부부가 결혼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부부간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Colman, 1984)로서 가족 내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며 적응의 능력을 배우는 아동은 부모간의 불화에 매우 민감하여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Grych & Fincham, 1990). 부모갈등이 아동에게 위협적으로 지각되고, 자기비난감을 유발하게 될 때, 아동이 분노, 슬픔, 근심, 수치심 등의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며(Grych & Fricham, 1993), 부모의 언어적, 신체적 갈등을 목격한 자녀는 생생한 공격행동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서 공격적으로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Grych & Fricham, 1990).

부모의 결혼적응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간접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부부관계의 질이 낮고 결혼만족도가 낮은 경우 빈번한 부부갈등으로 인하여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이혼이나 별거상황보다 더 열악하여 아동에 문제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결국 갈등이 심한 부부일수록 자녀를 거부하게 되며 자녀는 부모의 애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부모에게 반항적 태도를 취하게 되며 이러한 관계가 반복되면 자녀의 성장발달이 저해된다(Hurlock, 1998; 이남숙 외, 2009, 재인용).

선행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이 아동의 공격성(강덕귀, 2002; 정은희·이미숙, 2004), 반사회성과 비행(김영희·이정미, 2002), 불안과 사회적 위축(Holden & Ritchie, 1991; 정미경·김영희, 2003, 재인용), 내재화 문제행동(김정란·이은희, 2007)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의 갈등이 이들의 문제행동(내재화, 외현화 문제)을 유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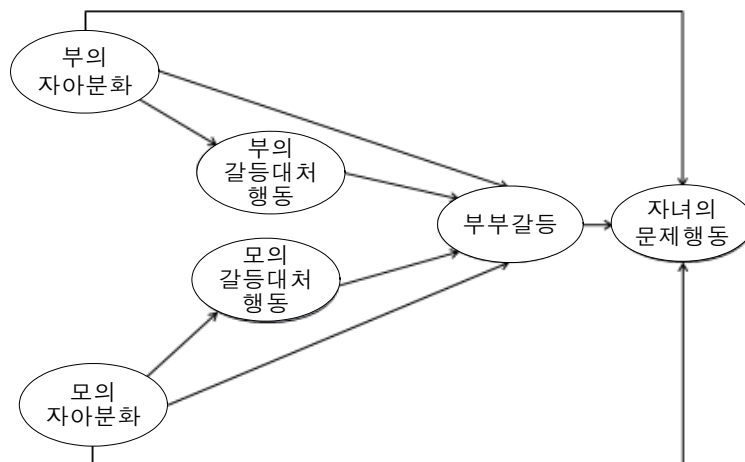
4.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부부갈등과의 관계에서 갈등해결양식의 매개역할

낮은 자아분화 수준이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해결양식을 가정하였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의존성을 보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철수하거나 단절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갈등을 다루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갈등해결방식을 사용하지만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갈등해결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가정된다(Baum & Shnit, 2005). 즉 스트레스를 주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 상황과 사람들을 적대적이라고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절충보다는 공격을 촉진시키게 될 수 있다(Friedman, 1991). 자아분화가 잘 된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등의 감정 중심적 대처를 하지 않고, 해결 중심적인 적극적인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고(이민수, 2000),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적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소극적 대처를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배옥현·홍상옥, 2008)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서 사용하는 갈등해결방식이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Gubbins, Perosa 및 Bartle-Haring(2010)의 연구에서 남편과 부인의 자아분화 수준이 부부 간에 논쟁할 때 얼마나 정서적으로 폭발하는지와 결혼생활만족도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남편과 부인 모두 이성적 대처를 더 많이 하고 회피대처와 행동표출 대처행동을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현주·김순옥, 1997)와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 갈등상황에서 이성적 대처를 많이 하여 결혼적응 수준이 올라가고,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갈등 상황 시 부정적 감정 및 행동을 표출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는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하여 결혼적응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소미·고영진, 2009)

결과들은 자아분화 수준과 부부갈등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양식이 매개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즉 낮은 자아분화 수준이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갈등대처 양식이 작용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Baum과 Shnit(2005)의 연구에서 부의 경우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적 갈등해결양식을 더 적게 사용하였으며, 자아분화수준과 공동부모역할 간에 공격적 갈등해결양식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의 경우에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적 갈등해결양식을 더 적게 사용하지만, 절충적 갈등해결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와 모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서 차별적인 갈등해결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와 모의 자아분화 수준을 통합하지 않고 각기 독립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갈등해결방식을 통하여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1]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 의해서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세대간 전이를 통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Gottman의 부부치료이론에 의해서 부부간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감정(비난, 방어, 경멸, 냉담) 촉발행동이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이론적 틀과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

하면, 부모의 자아분화수준이 부부갈등과 자녀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자아분화수준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로서 갈등해결방식이 작용함을 가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부와 모의 개별적인 자아분화 수준, 부부갈등, 부부갈등대처행동 및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 [그림 1]과 같은 연구의 틀을 설정하여 이를 밝혀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학부모 상담과 부모교육 개입방안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K도 5개의 시 지역에 소재한 8개 초등학교의 5학년과 6학년 24학급의 남녀 아동 399명을 임의표집하고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399쌍, 798부)를 하였다.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청소년들이 수업시간에 부모갈등, 문제행동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고, 이들의 부모에게 청소년 자녀가 가정에 전달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아분화수준, 부부갈등대처행동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설문지는 부와 모의 회신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하여 설문지에 기입한 후 밀봉하도록 하여 수거하였다.

수거된 399쌍의 설문지 중에서 친아버지와 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28쌍을 제외하고 371쌍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청소년은 남학생이 168명(45.28%)이고, 여학생이 203명(54.72%)이었다. 또한 5학년이 159명(42.86%)이고 6학년이 212명(57.14%)이었다. 이들 부의 평균 연령은 43.45세(표준편차=3.85)이고 모의 평균 연령은 40.37세(표준편차=3.64)이었다.

2. 측정 도구

- 1) 부부갈등 척도: Grych, Seid 및 Fincham(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는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내용, 해결여부, 지각된 위협, 대처 효율성, 자기 비난, 삼각관계, 안정성의 9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된 5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등 갈등의 특성 요인이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이 높다는 선행연구들(Cummings et al., 1981; Grych & Finchman, 1990; 정은희·이미숙, 2004, 재인용)을 참고로 하여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의 3개 차원 19개 문항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진술문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갈등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의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 2) 문제행동 척도: Achenbach(1991)가 개발한 것을 오경자, 하은혜, 홍강의 및 이혜련(1997)이 12~18세의 한국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연구한 후 제작한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를 장덕희(2001)가 재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2문항,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심함을 나타낸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내용은 불안/우울, 사회적 위축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은 비행, 공격성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행동 척도의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 3) 자아분화 척도: Skowron과 Friedlander(1998년)가 개발하고 Skowron과 Schmitt(2003)에 보완한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Revised(DSI-R, Skowron and Schmitt)문항을 배미예와 이은희(2009)가 우리말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진술문에 대해서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 까지의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분화 척도의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 4) 갈등대처행동 척도: McCubbin, Larson 및 Olson(1982)이 만든 가족 대처전략 척도(F-Copes)와 Folkman과 Lazarus(1980), 송말희(1990)의 척도를 기초한 최규련(1994)의 척도를 조유리와 김정신(2000)이 수정 보완한 2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갈등 시 대처행동을 이성적 대처, 외부도움 대처, 회피 대처,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의 4가지 하위척도(이성적 대처, 외부 도움 요청, 회피,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로 구성된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진술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갈등대처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갈등대처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이성적 대처(5문항)가 .72, 외부 도움 요청(5문항)이 .59, 회피(5문항)가 .84,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6문항)이 .71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부와 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대처행동(이성적 대처, 외부도움 요청 대처, 회피 대처,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 대처), 부부갈등과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부와 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대처행동 및 부부갈등을 통하여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여 LISREL8(Joreskog & Sorobom, 1993)을 이용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하였다. 공변량 모형들의 부합도를 측정하는 단일지수에 대한 견해가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전반적인 부합지수에 관한 다중지표를 제시하기를 권고하고 있다(Bollen, 1989; Marsh et al., 1988; Tanaka, 1993). χ^2 값의 부합도가 표본의 크기에 심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료의 부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NNFI (Non-Normed-Fit Index, Marsh et al., 1988), FI(Comparative-Fit-Index, Bentler, 199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teiger, 1990), χ^2 , χ^2 에 대한 p값, χ^2/df (Kline, 1998) 등 다중 통계치들이 사용되어졌다.

다변량분석을 위한 사전분석으로서 다변량 극단치 검증이 필요하다(Tabachnick & Fidell, 1996). SAS에서는 Cook's distance, DFFITS, DBETAS, RSTUDENT등을 종합하여 각 사례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RSTUDENT > 3 이고 Cook's Distance가 다른 사례들에 비해서 큰 경우를 극단치로서 제거시켰다. 총 3차 검증을 거쳐서 3명의 자료를 제외시켰다.

부와 모의 자아분화는 정서적 반응성,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의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측정변수를 사용하였고, 부부갈등은 갈등빈도, 갈등강도, 갈등해결의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측정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2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 측정변수를 사용하였다. 부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 대처행동, 모의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 대처행동 척도의 각 하위척도들은 각 측정치들을 요인분석하여 요인부하량이 비슷하도록 반분하였다. 그리고 반분한 문항들을 합산해서 하위척도 문항들을 구성하여 결과적으로 각 하위요인 당 2개씩의 하위척도들을 생성하여, 최종적으로 각 변수당 요인부하량이 비슷한 2개의 측정변수들을 구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Bruch et al., 1998; Russel et al., 1998).

IV. 연구결과

1. 부와 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대처행동, 부부갈등 및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아래 <표 1>에 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부의 대처행동, 부부갈등 및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가, <표 2>에 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모의 대처행동, 부부갈등 및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표 1> 부의 자아분화 수준, 대처행동, 부부갈등 및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변 인	1	2	3	4	5	6	7	M	SD
1. 부의 자아분화	—							132.55	22.27
2. 이성적 대처	-.09	—						17.37	3.28
3. 외부도움요청 대처	-.19***	.21***	—					11.83	3.69
4. 회피 대처	-.46***	-.08	.09	—				12.08	3.19
5.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대처	-.46***	-.33***	.07	.39***	—			13.15	4.53
6. 부부갈등	-.10*	-.09	-.01	.07	.31***	—		35.99	9.06
7. 자녀의 문제행동	-.03	.01	-.01	.01	.14**	.34***	—	64.40	15.91

주. N = 369. *p<.05. **p<.01. ***p<.001

<표 1>에 제시되었듯이, 부의 자아분화 수준은 회피대처,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 대처 및 외부도움요청 대처와 부적인 상관이 있고, 부의 자아분화수준은 부부갈등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갈등과 자녀의 문제행동은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 대처와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부부갈등과 자녀의 문제행동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모의 자아분화 수준, 대처행동, 부부갈등 및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변 인	1	2	3	4	5	6	7	M	SD
1. 모의 자아분화	—							129.02	20.93
2. 이성적 대처	-.07	—						17.37	3.28
3. 외부도움요청 대처	-.08	.21***	—					11.83	3.69
4. 회피 대처	-.24***	-.08	.09	—				12.08	3.19
5.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대처	-.28***	-.33***	.07	.39***	—			13.15	4.52
6. 부부갈등	-.10*	-.09	-.01	.06	.31***	—		35.99	9.06
7. 자녀의 문제행동	-.03	.01	-.01	.01	.14**	.34***	—	64.40	15.91

주. N = 37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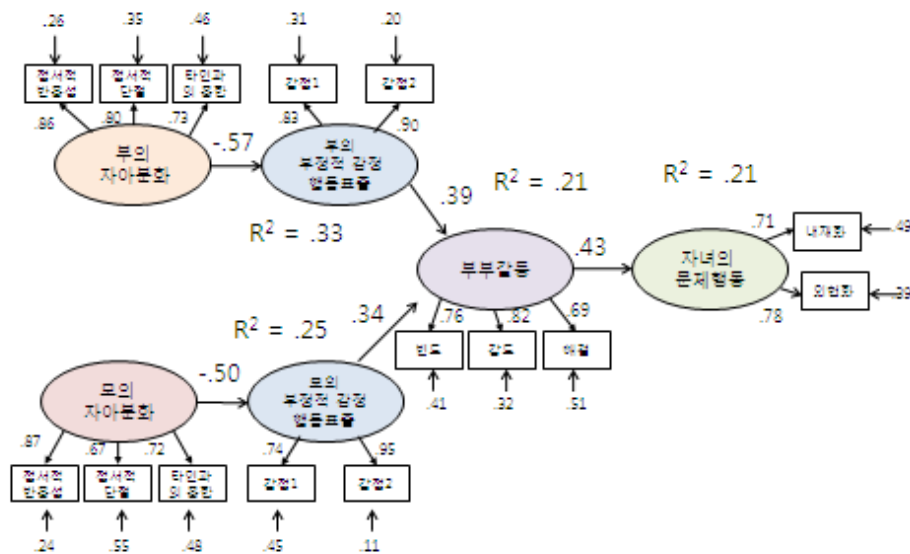
<표 2>에 제시되었듯이, 모의 자아분화 수준은 회피대처,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 대처와 부적인 상관이 있고, 모의 자아분화수준은 부부갈등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갈등과 자녀의 문제행동은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 대처와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부부갈등과 자녀의 문제행동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대처행동이 부분매개역할을 하여 최종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런데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의 선행조건으로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세 변인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처행동은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대처밖에 없어서, 부와 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의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대처행동이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여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비교적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78, N = 370) = 185.56, p < .001, \chi^2/df = 2.38, NNFI = .934, CFI = .951, RMSEA = .061$.

아래 [그림 2]에 본 연구에서 확인된 구조경로와 측정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부와 모의 자아분화, 부정적 감정 대처 부부갈등 및
자녀의 문제행동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설정모형에서 제시된 8가지의 가설적 관계 중 5가지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3가지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자아분화수준은 부의 감정적 대처행동에, 모의 자아분화 수준은 모의 감정적 대처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57$, $t = -9.08$, $p < .01$; $\beta = -.50$, $t = -6.96$, $p < .01$). 따라서 청소년 자녀의 부와 모가 원가족으로부터 자아분화 수준이 이들의 감정적 대처행동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와 모의 자아분화수준은 이들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11$, $t = 1.27$, $p > .05$; $\beta = .14$, $t = 1.69$, $p > .05$). 반면에 부와 모의 감정적 대처행동은 부부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39$, $t = 5.02$, $p < .01$; $\beta = .34$, $t = 4.80$, $p < .01$). 따라서 부와 모의 자아분화수준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와 모의 감정적 대처행동은 부부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와 모의 자아분화수준은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03$, $t = .38$, $p > .05$; $\beta = .04$, $t = .37$, $p > .05$). 그러나 부부갈등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3$, $t = 4.93$, $p < .01$). 따라서 부와 모의 자아분화수준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부갈등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부와 모의 자아분화,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대처, 부부갈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확인된 경로를 중심으로 전체효과를 분해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부모의 자아분화, 감정적 대처, 부부갈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전체효과의 분해

경로	모형추정치
부의 자아분화	-.096
자아분화→감정적 대처→부부갈등→자녀의 문제행동	
모의 자아분화	-.073
자아분화→감정적 대처→부부갈등→자녀의 문제행동	
모든 경로들의 순효과	-.169

부의 자아분화 수준은 직접적으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부의 감정적 대처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고($-.57 * .39 = -.22$, $t = -4.46$, $p < .01$), 다시 부부갈등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하여($\beta = .43$, $t = 4.93$, $p < .01$), 결국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57 * .39 * .43 = -.096$).

모의 자아분화 수준도 직접적으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모의 감정적 대처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고($-.50 * .34 = -.17$, $t = -3.98$, $p < .01$), 다시 부부갈등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하여($\beta = .43$, $t = 4.93$, $p < .01$), 결국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50 * .34 * -.17 = -.073$).

결론적으로 부와 모의 자아분화는 감정적 대처행동을 떨어뜨려 부부갈등 수준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대처행동, 부부갈등 및 자녀의 문제행동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부와 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갈등대처행동과 부부갈등을 통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주요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의 자아분화 수준은 회피대처,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 대처 및 외부도움요청 대처와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자아분화 수준은 회피대처,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 대처와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회피대처와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 대처를 적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분화가 잘 된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등의 감정 중심적 대처를 하지 않고, 해결 중심적인 적극적인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민수(2000)의 연구결과 및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적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소극적 대처를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배옥현과 홍상옥(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결국 본 연구결과는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서 대처방식이 달라짐을 재확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부와 모의 자아분화수준은 부부갈등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와 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을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분화 정도가 낮을수록 부부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한영숙(2007)의 연구결과 및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결혼적응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전준애·박성연, 1994; 이소미·고영건, 2009)과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는 자아분화 수준이 낮아서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부부관계에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Bowen(1976)의 핵가족의 정서체계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즉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결합일수록 이들 부부의 자아가 융해되어 공동자아를 형성하며, 때로는 융해가 반대로 부부간의 정서적 거리감을 증가시켜서 자녀에게 문제를 투사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부적응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부부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자아분화 향상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와 모의 자아분화 수준은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없었으며, 직접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감정적 대처행동을 통하여 부부갈등 심화시키고, 심화된 부부갈등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의 자아분화 수준은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자아분화수준과 자녀와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정경연·심혜숙, 2007; 정문자 외, 2004; 조영경, 1999; Tuason & Friedlandle, 2000)과 일치하며, 부와 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자녀의 문제행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부와 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부정적 감정적 대처행동을 통하여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 갈등상황에서 이성적 대처를 많이 하여 결혼적응 수준이 올라가고,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갈등 상황 시 부정적 감정 및 행동을 표출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는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하여 결혼적응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이소미와 고영건(200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부의 경우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갈등 상황 시 공격적 갈등 해결양식을 더 적게 사용하여 공동부모역할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난 Baum과 Shnit(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부와 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경우에 갈등상황에서 부정적 감정적 대처행동을 많이 함으로써 부부갈등을 심화시켜서 결국에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본 이 결과는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의미있는 지속적인 관계능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서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한다고 본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즉 부모의 자아미분화 수준이 직접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되기 보다는 가족투사 과정을 통하여 부모가 자신의 미분화를 자녀에게 물려줌으로써 미분화가 세대를 걸쳐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아분화 수준이 낮고 긴장이 심한 부모일수록 삼각관계를 통해서 회피하려고 하고, 이러한 삼각관계는 부모 한 사람과 자녀 사이에 강한 애착관계를 유발하고 이러한 삼각관계에 휘말리는 자녀가 상처받기 쉬운 성향을 가졌다면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김유숙, 2007) 여겨진다.

Gottman, Swanson 및 Murray(1999)도 부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억압하는 부정적 감정(비난, 방어, 경멸, 냉담) 촉발행동이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핵심요인임을 확인하고, 부부 간의 긍정적 감정 강화하기에 초점을 맞춘 부부치료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부부문제에 대한 관점차이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의사소통은 활짝 열리게 되고 의견 차이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담이 아니라 자신감이 되어(Kerr & Bowen, 1988; 2005), 부부갈등과 자녀의 문제행동의 심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들의 부적응 문제에 개입할 때에는 부와 모의 자아분화 수준까지 고려해야 하며, 학교상담 현장에서 부적응 청소년 부모의 부정적 감정적 대처행동에 대한 학부모 상담 또는 부모교육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부와 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부와 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갈등상황에서 상호간에 부정적 감정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여 부부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결국에는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을 악화시킴을 확인하였으며, 부모의 원가족으로 부터의 자아분화가 자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과정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때 부모에 대한 개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결국 본 연구는 부모의 자아분

화 수준이 세대 간 전이를 통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Bowen의 가족체계이론과 부부간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감정(비난, 방어, 경멸, 냉담) 촉발행동이 부부관계를 악화시킨다는 Gottman의 부부치료이론을 재확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를 통해 부모용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기 때문에 가족이나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타인에게 노출하기를 꺼리는 방어적 응답으로 설문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반복연구에서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초기 청소년인 초등학교 5-6학년의 아동과 그 부모였기에 청소년 집단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까지를 포함한 연구를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청소년 전체까지 적용하여 일반화 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Skowron과 Schumit(2003)의 자아분화 척도는 국내에서 아직 많이 사용되지 않은 척도로서 더 많은 후속연구를 통하여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강덕귀(2002).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와 유아의 문제행동.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권영옥 · 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CI)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제18권 1호, pp. 65-80.
- 경기북부시민신문(2009). 의정부시 아동, 청소년 기출실태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 http://www.simin24.com/?doc=news/read.htm&ns_id=14693(2009. 11. 13).
- 경향신문(2009). 유해 환경 탓 소년범죄 급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011436345&code=210000(2009. 11. 1).
- 김광웅 · 조미영(1999). 가정의 경제적 불안, 부모의 우울, 아동의 사회적지지 지각이 아동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연구, 제13호, pp. 1-19.
- 김영희 · 이정미(2002). 부모간의 갈등과 아동.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부적응. 놀이 치료연구, 제6권 제1호, pp. 95-114.
- 김유숙(2007). 가족상담. 서울: 학지사.
- 김정란 · 이은희(2007). 중년 여성의 불안정 애착이 본인의 우울수준 및 자녀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갈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2호, pp. 297-319.
- 동아일보 2006. 4. 10일자 A12면 기사 : 초중고생 세 명 중 한명 정신건강 문제
- 박경환(2010). 기혼직장인의 자아분화가 가정생활만족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갈등 대처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4권 제4호, pp. 57-75.
- 배미예 · 이은희(2009).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및 우울/불안간의 관계: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 pp. 85-112.
- 배옥현 · 홍상욱(2008). 대학생의 자아분화 정도가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7권 제1호, pp. 27-34.
- 서연석(1999).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말희(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 정도와 대응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 관리학회지, 제8권 제2호, pp. 31-48.

- 양현아·박영애(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3권 제6호, pp. 847-860.
- 오경자·하은혜·홍강의·이혜련(1997).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서울: 중앙적성 연구소
- 이경주·신호식(1997).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 수준에 따른 부작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제4호, pp. 15-26.
- 이남숙·신선희·김영희(2009).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결혼적응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제13권 제1호, pp. 83-104.
- 이미숙·오영진·김영희(2009). 어머니의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생활과학연구논총, 제13권 제2호, pp. 53-70.
- 이민수(2000). 가족응집력과 자아분화가 공감과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미·고영건(2009). 자아분화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효과: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8권 제3호, pp. 643-658.
- 이정덕·권영옥(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제20권 제1호, pp. 115-133.
- 이현주·김순옥(1997). 부부의 자아분화 정도와 갈등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권 제1호, pp. 90-112.
- 장덕희(2001). 가정폭력 경험 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연진·정문자(2003).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8호, pp. 139-158.
- 정경연·심혜숙(2007). 부모 자아분화와 아동 자아분화 및 세대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28권 제6호, pp. 119-133.
- 정문자·박진아(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22권 제3호, pp. 107-122.
- 정문자·전연진·김진이(2004).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2호, pp. 133-150.
- 정미경·김영희(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8호, pp. 123-137.
- 정은희 · 이미숙(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4호, pp. 115-126.
- 전춘애 · 박성연(1994).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제4호, pp. 117-133.
- 제석봉(2002). 자아분화와 부부적응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3권 제1호, pp. 171-184.
- 조영경(1999). 어머니와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 및 신경증적 경향성의 관계.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은경 · 정혜정(2002).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대처행동 및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제1호, pp. 1-16.
- 조유리 · 김경신(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광주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지, 제5권 제2호, pp. 1-21.
-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 학회지, 제12권 제2호, pp. 140-152.
- 한국교육신문 2007. 1. 1일자 K면 기사 : 학교폭력 3가지 조심하세요.
- 한미현 · 유안진(1995). 아동 행동평가 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제16권 제2호, pp. 5-21.
- 하선애(2007).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격의 차이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숙(2007).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 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2호, pp. 259-272.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pp. 1173-1182
- Baum, N., & Shnit, D.(2005). Self-differentiation and narcissism in divorced parents' co-parental relationships and functioning.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Vol. 42, pp. 33-60.

- Bentler, P. M.(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7, pp. 238-246.
- Bollen, K. A.(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Wiley.
- Bowen, M.(1976). therap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Jr. (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pp. 42-90). New York: Garden.
- Bowen, M.(1990).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Jersey: Jason Aronson.
- Bruch, M. A., Berko, E. H. and Haase, R. F.(1998). Shyness, masculine ideology, physical attractiveness, and emotional inexpressiveness: Testing a mediational model of men's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5, pp. 84-97.
- Busby, D., & Holman, T.(2009). Perceived match or mismatch on the Gottman conflict styles: Associations with relationship outcome variables. *Family Process*, Vol. 48, pp. 531-545.
- Coleman, J. C.(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Indianapolis: Bobbs-Merrill.
- Denton, W., Burleson, B., Hobbs, B., Von Stein, M., and Rodriguez, C.(2001). Cardiovascular reactivity and initiate/avoid patterns of marital communication: A test of Gottman's psychophysiological model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Vol. 34, pp. 401-421.
- Folkman, S., & Lazarus, R. S.(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 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5, pp. 229-244.
- Friedman, E.(1991). Bowen theory and therapy. In a. Gurman and D. Knish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Vol II). New York: Brunner-Mazel.
- Gottman, J. M.(1999). *The marriage clinic: A scientifically based marital therapy*. New York: W.W.Norton.
- Gottman, J. M., Swanson, C., and Murray, J.(1999). The mathematics of marital conflict: Dynamic mathematical nonlinear modeling of newlywed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13, pp. 3-19.

- Grych, J. H., & Fincham, F. D.(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8, pp. 267-290.
- Grych, J. H., & Fincham, F. D.(1993). Children's appraisals of interparen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Vol. 64, pp. 215-230.
- Grych, J. H., Seid, M., and Fincham, F. D.(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Vol. 63, pp. 311-327.
- Gubbins, C. A., Perosa, L. M., and Bartle-Haring, S.(2010).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couples' self-differentiation/individuation and Gottman's model of marital interaction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Vol. 32, pp. 383-395.
- Jöreskog, K. G., & Sörbom, D.(1993).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 Kerr, M. E, and Bowen, M.(2005)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 [Family Evaluation]. (남순현 · 전영주 · 황영훈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8에 출판)
- Kline, R. B.(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Marsh, H. W., Balla, J. R., and McDonald, R. P.(1988). Goodness-of-fit indexes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effect of sample size.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pp. 391-411.
- McCubbin, H. L., Larsen, A. S., and Olson, D. H.(1982). F-COPES: Family coping strategies. In D. H. Olson, H. I. McCubbin, H. L. Barnes, A. S. Larsen, M. J. Muxen and M. A. Wilson(Eds.), *Family inventories*.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 Nichols, M. P., & Schwartz, R.(2004). 가족치료: 핵심개념과 실제적용 [The essentials of family therapy]. (김영애 · 김정택 · 심혜숙 · 정석환 · 제석봉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2년에 출판)
- Peleg, O.(2005). The relation between differentiation and social anxiety: What can be learned from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American Journal of*

- Family Therapy*, Vol. 33, pp. 167-183.
- Russell, D. W., Kahn, H., and Altmaier, E. M.(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5, pp. 18-29.
- Skowron, E. A, & Fiedlander, M. L.(1988).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5, pp. 235-246.
- Skowron, E. A., & Schmitt, T. A.(2003). Assessing interpersonal fusi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new DSI fusion with others sub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29, pp. 209-222.
- Steiger, J. H.(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 25, pp. 173-180.
- Tabachnick, B. G. and Fidell, L. S.(1996)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3rd ed.).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 Tanaka, J. S.(1998). Multifaceted conceptions of fit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K. A. Bollen and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0-39). Newbury Park, CA: sage.
- Tuason, M. T., & Friedlander, M. L.(2000). Do parent's differentiation level predict those of their adult children? and others tests Bowen theory in a Philippine sam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7, pp. 27-35.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Differentiation Levels of Parents and Behavior Problems in Their Children : The Mediating Role of Marital Conflict and Conflict Coping Behavior

Lee, Hye-Kyeong* · Lee, Eun-Hee*

This study examined the psychological process in which paternal and maternal parent's self-differentiation levels impact upon marital conflict and the relationship of these issues to behavior problems in their children. The study also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conflict coping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and maternal parent's self-differentiation levels and conflicts within their marriage. Data were collected from 399 male and female adolescents in 8 elementary schools (the fifth- and sixth-year students from 24 classes) and their parents from 6 cities in K Provin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parental parent's self-differentiation, the less use is made of requests for external assistance. Higher levels of parental self-differentiation was also accompanied by a higher incidence of avoidance, as well a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physical acting-out in the context of conflict within the couples. Moreover, the higher the level of maternal parent's self-differentiation, the less use is made of avoidance and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physical acting-out in the context of conflict within the couples. Thes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maternal parent's self-differentiation, the frequency of marital conflict is perceived to be lower. There was an indication that the paternal and maternal parent's self-

* Kyungnam University

differentiation level did not have a direct influence on behavior problems in their children. However, it did have an influence on their marital conflict. This was manifested through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or physical acting-out coping behavior in the context of marital conflict. These findings have a number of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treatment of behavior problems in adolescence.

Key Words : self-differentiation, marital conflict, behavior problems,
conflict coping behavior

투고일 : 4월 21일, 심사일 : 6월 16일, 심사완료일 : 6월 24일